

市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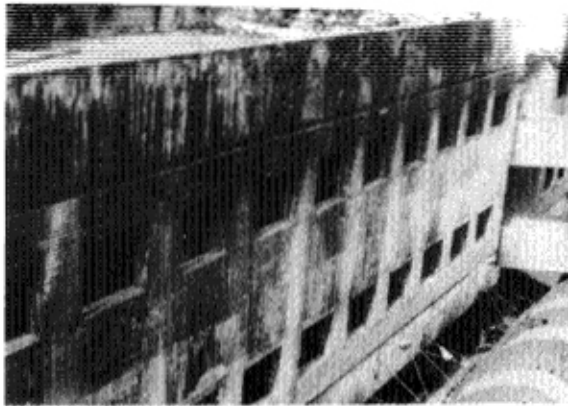
〈N市場 D棟 火災〉

불길 12時間 ...  
鐵製 「셔터」에 갇힌 市場火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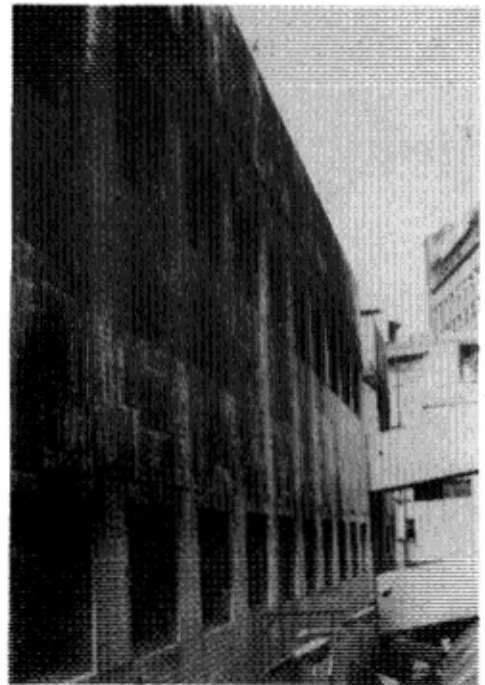
1975. 6. 10

—성냥불티에 衣類가 燻燒하다 2時間半後에 發火—  
負傷 4名, 財産被害 約 6億원(動産 不包含)

〈画報寫眞 23番 參照〉



火災後의 外觀



● 一般事項

建物用途：市場

所在地：서울特別市 中區

火災日時：1975. 6. 10. 00:03~12:33

發火位置：D동 1층 양품부 점포

火災原因：성냥불티에 의한 失火

## ●建物概要

貸地 66,000m<sup>2</sup>, 3,500餘 店舗로 된 大型市場. 이 중 中央商街(C棟 및 D棟)는 同市場 가운데 위치한 철근「콘크리트·라멘」造 建物이며 불이난 D棟의 總 延面積은 10,684m<sup>2</sup>로서 지하 2층 기관실·변전실, 지하 1층 魚類 등 食料品, 1층 잡화·의류, 2층 의류, 3층 가구점·제품창고·봉제공장, 4층 관리실·교환실·보세공장 등 총 330여개의 점포·업소 등으로 되어 있었다.

## ●火災狀況

火災는 1975. 6. 10. 00:03시경 1층 동쪽 아동복 상회에서 발생. 한밤중이었으므로 建物은 「서터」로 굳게 닫혀 있었고 80여명의 女工들이 3,4층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數名의 경비원들만이 勤務中이었다.

1층 外廓 경비원 하나가 4층에서 옥내 순찰중이던 경비반장의 불이 났다는 고함 소리를 듣고 1층 동쪽「서터」를 열고 들어가 불길의 치솟는 것을 發見, 屋內消火栓으로 진화하려 했으나 계속 번져 다시 뛰쳐나와 소방서에 신고했다. 한편 숙직원 2명은 인접 건물로 연결된 4층 비상계단 겸 통로 4곳의 「서터」를 열고 잠자던 여공들을 깨워 대피시켰다.

300여명의 소방대원들이 70여대의 소방차를 동원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건물 外廓과 屋內의 各 店舗別로 설치된 防犯用 鐵製「서터」 때문에 消火水가 火災部位에 도달하지 못하고, 점포는 물론 通路에까지 쌓아둔 많은 化學섬유로 된 의류, 合板 간막이 등이 타며 내뿜는 有毒「가스」와 불길은 건물에 防火區劃마저 되어있지 않아 쉽사리 1층내부 전체를 태우면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번졌고 새벽 3시경에는 3층, 4시30분경에는 4층으로 번져 건물 전체를 휩쌌다.

많은 可燃物의 燃燒로 煙氣와 熱氣가 심해 접근하기조차 어려워 인접한 C동과「아케이드」建物로의 延燒防止에 注力하다가 火災發生 2시간만에 外部「서터」를 도끼로 부수었으나 공기가 건물내로 흡입되자 불길은 더욱 번지기도 했다. 또한 좁은 소방도로(6m)와 건물 주위에 거미줄 같이 늘어선 高壓線이 소화활동에 크게 障礙가 되었으며 韓電에 連絡, 斷電하기도 했다. 화재발생 9시간 후인 상호 9시쯤 2~3층 外壁이 여러곳 금갔고 4층 假建物「블록」벽이 무너지기 시작, 접근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火災은 發火店舖의 主人이 전날밤 21:40시경 술에 취해 점포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떨어뜨린 성냥불티에 의류가 引火 燻燒되다가 發火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발생 12시간 이상이 지난 12시33분 경에야 완전진화되었는데, 이불로 지하 1층 이상의 건물내粧 일체와, 지상 1층 이상의 骨造大部分을 燒損시켰으며 收容된 各種 商品을 비롯 動産 一切가 全燒되었다. 多幸히 死亡者는 없었으나 女工 3名이 질식 또는 「쇼크」로 入院하고 소방대원 1명이 진화작업중 重傷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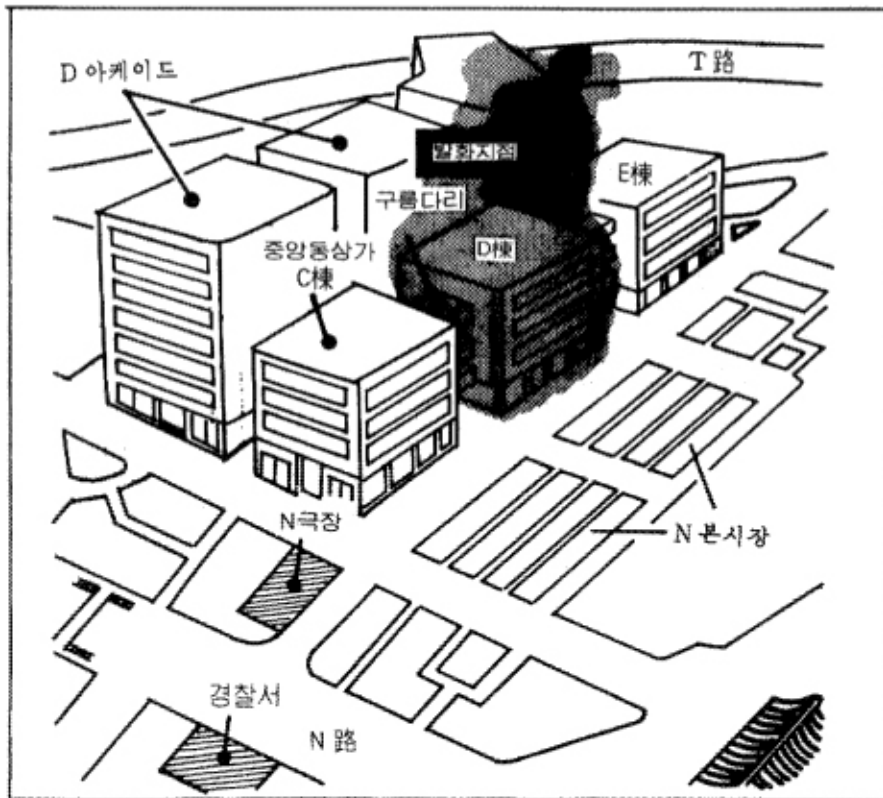
## ●被害狀況

人命被害: 負傷 4名(消防隊員 1名 包含)

財産被害: 약 6억원(動産 不包含)

● 問題點

1. 건물外廓과 内部 各店舖마다에 설치된 鐵製「서터」로 인한 消火作業 困難
2. 狹少한 消防道路 및 建物周圍에 거미줄 같이 얽힌 高壓線으로 因한 消火作業 困難
3. 大規模 市場建物에 合當한 「스프링클러」設備 등 自動消火設備의 未設置
4. 防火區劃의 未設置
5. 商品 및 可燃性 간막이 등 큰 火災荷重에 對備한 排煙 및 排熱設備의 未設置



화재 현장 입체도